

건강의료

골반세포·혈장 이식 퇴행관절 복원



문영래 교수가 어깨관절 환자의 찢어진 관절 조직을 깨낸 후, 봉합 부위에 골반 세포와 혈장을 주사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병원 문영래교수 어깨관절 치료법 세계서 주목

나이가 들면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어깨관절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큰 불편을 겪는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수십 년을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술을 해도 예전 같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어깨관절 질환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시술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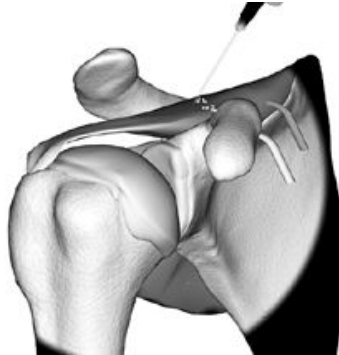
조선대병원 관절센터 문영래(45) 교수의 '어깨관절 퇴행에 관한 골수 혈액치료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문 교수의 치료법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시술의 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선 관절의 조직 중 손상된 부분을 깨낸 뒤, 골반 조직에서 세포와 혈장을 분리해 봉합부위에 주입한다. 일반적으로 어깨관절은 수술을 하더라도 봉합한 조직이 다시 찢어져 재발하는 수술을 받았었다. 그러나 문 교수의 시술은 봉합한 조직에 골반 세포를 주입할 경우, 단핵구 세포가 줄기세포로 변하면서 정상 조직에 가깝게 복원되는 것이다. 또 한 함께 주입한 혈장은 영양분 역할을 해 조직의 치유를 촉진한다.

어깨관절 조직이 정상화돼 관절의 힘과 유연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조직이 다시 찢어지지거나 통증이 재발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문교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술을 시작해 지금까지 1천여명을 치료했다.

2~3년 전부터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 환자들이 방문해 수술을 받고 있으며, 현재 치료를 위해서는 2~3주를 대기해야 할 정도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 교수는 "인체의 전반적인 항노화 프로젝트에 한걸음 나아가는 토대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추후에도 어깨관절은 물론 관절염, 노화 과정의 지연, 퇴행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자신의 신체 세포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인체의 전반적인 항노화 프로젝트에 한걸음 나아가는 토대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추후에도 어깨관절은 물론 관절염, 노화 과정의 지연, 퇴행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자신의 신체 세포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복원술 후 주사하는 모습.

"치료 한계 극복" 로이터 등 잇단 소개 1천여명 시술...인체 항노화 토대 마련

퇴행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유명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은 힘줄 파열에 따른 것으로, 파열의 원인이 다쳐서라기 보다는 노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일반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깨를 포함한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즉 항노화를 위한 투약, 외용제, 주사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수술을 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수술로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치료 또는 회복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문 교수의 시술은 이같은 어깨관절 치료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술 방식과 치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체에서 퇴행속도가 가장 느린 골반 세포를 손상부위에 주입해



서구 정신건강센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탁기와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모리 손질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 통한 사회적응 도움

광주 서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재활 호응

광주 서구청(청장 전주연)이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지 못하고 병을 숨기거나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병에 대한 가족의 부담감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질환자에 대한 연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주간·직업재활 프로그램, 사례 관리, 위기 개입, 방문 진료, 가족 상담, 전문의 상담 및 자문회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사회 자문 및 심리검사, 지역주민 및 실무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은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신질환자들의 질병관리를 위한 약물중상교육·스트레스관리·대인관계훈련·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방문진료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지역 내에서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심근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신건강 전화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정신건강 전화상담은 전체 상담건수(3천147건) 중 약 47%(1천484건)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무료 심리검사와 병행하고 있다. 서구 정신건강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윤모(여·40)씨는 "병원 치료를 할 여유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서구청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일반인처럼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비스 문의 및 정신건강상담 예약은 062-375-8517, 350-4193~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연안과병원 경찰관 8명 무료 라식수술

이연안과병원이 민생치안을 담당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최근 무료라식수술을 실시했다.

이연안과는 광주지방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서 모범 경찰관 8명을 추천받아 시술했다.

이연안과병원 조영운 원장은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는 광주 지역 경찰관들이 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연안과병원은 광주지방경찰청의 진로지정 병원으로서 이번 모범경찰관 대상 무료라식수술 행사는 2번째이다.

이연안과는 또 최근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의 여성 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인 '소화성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연안과 직원 18명은 여직원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거나 화장을 해줬으며,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일주일간 JCI 인증 평가

화순전남대병원(원장 변희승)이 최근 일주일간 실시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최종 평가를 성공리에 마쳤다. JCI는 의료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이다.

JCI는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비영리법인인 제이코(JCAHO)가 1994년 만든 국제기구로, JCI인증은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길 만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국제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JCI 전문 평가단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서류평가 및 인터뷰, 시스템 추적, 환자 추적 활동 등을 통해 전반적인 병원 시스템과 정책을 평가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이번 최종 인증을 통과할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국립대병원으로는 최초로 JCI 인증을 받는 종합병원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강관리협회 금연글짓기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장점에 대한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글짓기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금연 글짓기 공모'는 조기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 인구의 확산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주관·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이며, 작품내용은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본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장점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보내는 금연의 편지(편지지 작성 가능) 등이어야 한다.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7매 내외이며, 접수 마감은 4월 30일까지다. 작품 접수 및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02-2601-6145).

시상은 대상 2명(보건복지부 장관상장 2명, 장학금 각 50만 원)을 비롯해 총 942명에 대해 수여된다. /채희종기자 chae@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Promise'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안내', '인터넷가입문의', '캠퍼스튜디오', '반국한문화당', '댄스사위아카데미', '아울렛DC백화점', '카포인트', '신포우리만두(전대병원점)', '우정선령탕', '회사랑', '참삼검장작구이전문점', 'G&D도시개발(주)', '좌훈카페 광주농성점', '무안심심낙지마당', '태백산맥문홍점', '위드락치킨운암점', '대주공인중개사', '수도꼭지', '싸리골식당', 'VIP당구장', '심청아빠고파생촌점', '천안문', '봉순이아구짬', '아이비클럽(문홍점)', '광주YWCA신협', '명명이상추튀김&호프', '베네슈 공인 중개사', '참한우식육식당', '가족사랑서구노인복지센터', '황제쟁반짜장', '키움설비', '팜팜민물장어', '우리공인중개사', '드라이하우스쌍촌2호점', '교보생명무등FP지점', '양영공인중개사무소'.